

KERI Brief

TPP,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 일본의 TPP 참여와 한국의 전략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

이경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일 본은 그동안 농업부문의 민감성으로 인해 TPP 협상 참여를 미뤘으나, 지난 3월 15일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하였다.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TPP를 확대 재편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 경쟁 판도와 한국의 TPP 참여 관련 손익계산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TPP 참여로 인해 한국의 TPP 참여 이익은 증가하고 TPP 참여 손실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시기에 맞춰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은 일본의 시장선점효과를 상쇄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아태 지역의 통상 규범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농업 및 ISD 등 분야에서 일본과의 공동으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PP 참여국 가운데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노동 집약 산업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TPP 타결

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한중 관계 악화가 우려되나,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TPP 참여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국내외 정지작업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TPP 참여 희망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문제제기

□ 일본은 그동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미뤄왔으나, 지난 3월 15일 TPP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을 포함하여 태평양 연안 11개국이 2013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 높은 FTA'

- 2013년 2월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상호 민감한 분야에 대한 관세철폐 예의를 인정키로 함으로써 일본의 TPP 참여 가능성 제고

* TPP 11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및 뉴질랜드(P4: 창설 4개 회원국), 미국,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2009~2010년 참여), 캐나다, 멕시코(2012년 참여)

□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아태 지역에서 TPP의 경제적·전략적 위상을 한 층 더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 경쟁 판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TPP 참여로 TPP는 전 세계 GDP의 32%, 전 세계 무역의 26%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급부상 (EU는 전 세계 GDP의 21%, RCEP은 전 세계 GDP의 24%)

- 이는 TPP와 경쟁 양상을 보이는 RCEP이나 한중일 FTA 협상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ASEAN+6국(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으로 2013년 상반기 중 협상 개시 예정

□ 일본의 TPP 참여는 한국의 TPP 참여 여부에 대한 손익계산에 상당한 변동 초래

- 한국과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관계가 상당히 높은 편

2. TPP 협상 동향 및 주요내용

□ TPP는 미국 등 아시아 태평양 연안 11개국이 2013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

- TPP는 P4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2009~2010년 사이 미국,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이 추가로 참여하였고, 2012년 6월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추가로 참여

* P4: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로 구성된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SEP)으로 2006년 5월 발효

□ TPP 참여국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6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당초 '100%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최근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

- TPP 협상은 협상내용에 대한 참여국 간 이견으로 협상 타결 목표 시점이 당초 2011년 말에서 2013년 말로 연기
- 오바마 미 행정부는 2014년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2013년 내 TPP 타결을 목표로 추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 TPP의 주요 협상 분야 및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을 원칙으로 설정

- 일괄타결방식은 전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간주하여, 모든 분야가 타결되었을 때 비로소 협상이 타결된다는 협상 원칙

[표 1] TPP의 주요 협상 분야 및 내용

협상 분야	협상 내용
상품시장접근	•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 방법 등
원산지 규정	• '체약국(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및 인증 절차
무역원활화	•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위생검역	• 식품 안전성 확보, 위생검역 조치 이행에 관한 규범
기술장벽	• 제품의 안전규격 등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범 제정
무역구제	•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요건
정부조달	• 정부 구매, 공공사업의 발주 관련 규범
지적재산권	• 모조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례의 취급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으로 의약품의 저가 공급 차질 발생 우려 → 칠레, 브루나이, 페루,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 Special 301조의 지적재산권 침해 감시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로서 우려
경쟁정책	• 경쟁 법 및 제도의 강화, 정부 간 협력 → 싱가포르, 베트남 등: 국영기업 보호 철폐 요구에 대한 우려
서비스 교역	•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제 철폐, 비차별원칙
인력이동	•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및 체재 수속의 간소화
금융서비스	• 초국경 금융서비스 관련 규범
통신서비스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인프라에 대한 공정 접근 등에 관한 의무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의 환경, 규범의 정리 등에 관한 원칙
투자	• 국내외투자자에 대한 비차별 원칙, 투자관련 분쟁해결절차 → 호주: ISD 조항 반대
환경	•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의 금지
노동	•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완화의 금지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노동기준의 엄격한 준수 요구에 대한 우려
분쟁해결	• 협정해석의 불일치 등에 의한 체약국 간 분쟁해결절차
협력	• 협정의 이행 체제가 미비한 국가에 대한 지원
cross-cutting issues	• 복수 분야에 걸친 규제에 대한 무역 장벽 방지
협정이행	• 협정 이행에 관한 협의기관의 설치 및 권한

자료: USTR 홈페이지

3. 일본의 TPP 참여 선언 및 의의

- 2010년 10월 간 일본 전 총리가 처음으로 일본의 TPP 참여 검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2012년 12월 TPP 참여 여부가 일본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등장
-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민당은 ‘100% 무역자유화’를 전제로 하는 TPP에 불참할 것을 선언
- 2012년 12월 아베 자민당 내각 집권 후, TPP 참여는 ‘아베노믹스(통화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재추진
- TPP 등 글로벌 시장 확대는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농업, 의료 등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글로벌 시장 확보) 중 최우선 과제로 설정

- 2013년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상호 민감한 부문을 고려기로 합의함에 따라, 자민당이 TPP 참여를 승인하였고, 3월 15일 아베 총리가 일본의 TPP 참여를 공식 선언
- 2013년 2월 23일 아베 일 총리와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에 민감한 자동차 부문과 일본에 민감한 농업 부문 등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합의
- 자민당은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당초 ‘10% 예외 인정’을 주장하였으나 ‘5개 품목(쌀, 보리, 소고기 및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예외 인정’으로 요구 조건을 완화

[표 2] 일본의 TPP 참여 경위

시기	TPP	일본
2010.10	-	• 간 총리, TPP협상 참가 검토 의사 표명
2011.11	• APEC 정상회의: TPP 윤곽 공표 (2012년 중 타결 목표) • 캐나다, 멕시코가 교섭참가국과의 협의 개시 표명	• 노다 총리, TPP 협상참여 관련 관계국과 협의 개시 표명
2011.12	• 미국에서 일본의 TPP 참여 관련 의견 수렴	• TPP 협상 참가 관련 제1차 각료회의 개최
2012.1	• 베트남 · 브루나이 · 페루 · 칠레, 일본의 TPP 참여 지지	-
2012.2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일본의 TPP 참여 지지	• TPP 관련 세미나 전국에서 개최
2012.6	• TPP 9개국, 캐나다 · 멕시코 TPP 참여 승인	-
2012.7	-	• ‘일본재생전략’ 각의: 협상참가 위한 관계국과의 협의 진행 결정
2012.9	• APEC 정상회의, 2012년 중 협상타결 사실상 포기	-
2012.11	• 태국, 협상 관련 국내절차 착수 표명	• 일본 중의원 해산
2012.12	• TPP 제15차 협상에 캐나다와 멕시코 처음으로 참여	• 제2차 아베 내각 발족
2013.2	• 오바마 미 대통령, TPP와 TTIP 병행 추진 의사표명	• 미일 정상, 상호 민감품목 인정 합의
2013.3	• 제16차 TPP 협상 개최	• 일본의 TPP 참여 선언

□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TPP의 경제적·전략적 역내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경쟁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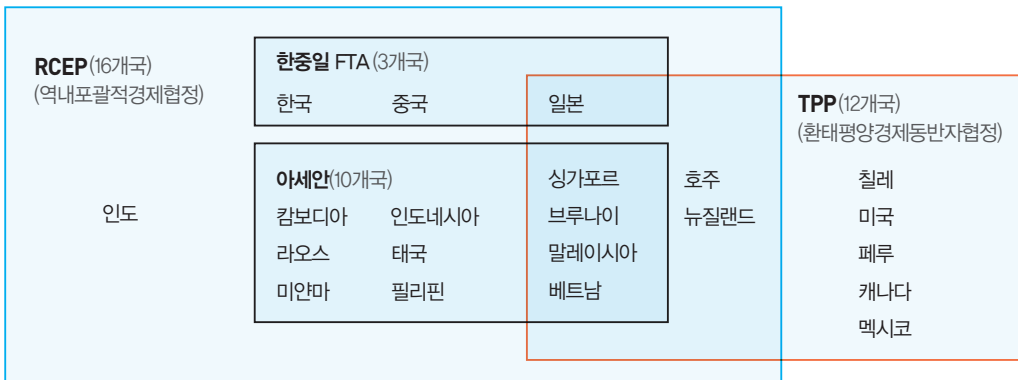
- 일본의 TPP 참여로 TPP는 전 세계 GDP의 32%, 전 세계 무역의 26%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급부상

* EU는 전 세계 GDP의 21%,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 세계 GDP의 24% 차지

- TPP의 확대 재편은 TPP 참여국들의 이익과 TPP 배제국의 손실을 동시에 증가시켜 역외국의 연쇄적 참여를 유발할 가능성 제고

- TPP와 경쟁 양상을 보이는 RCEP이나 한중일 FTA 협상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그림 1]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



[표 3] TPP와 RCEP 경제규모 비교(2011년 기준)

		GDP (십억 달러)	인구 (백만 명)	수출 (십억 달러)	수입 (십억 달러)	무역 (십억 달러)
TPP	일본 제외	20,596.8 (24.9%)	656.8 (9.0%)	3,456.8 (19.4%)	4,221.5 (23.0%)	7,678.3 (21.2%)
	일본 포함	26,463.9 (32.0%)	784.7 (10.8%)	4,281.2 (24.0%)	5,076.3 (27.7%)	9,357.5 (25.9%)
RCEP		19,703.7 (23.8%)	3,388.1 (46.6%)	5,138.8 (28.8%)	5,045.1 (27.5%)	10,183.9 (28.1%)
EU		17,551.4 (21.2%)	503.4 (6.9%)	5,855.3 (32.8%)	6,080.4 (33.1%)	11,935.7 (33.0%)

주: ()는 전 세계 대비 비중
자료: IMF

□ 일본의 TPP 참여는 그동안 일본의 FTA 추진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농업 등 경쟁력 취약 분야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해외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회복과 고용증가 기대

- 일본 정부는 일본이 TPP에 참여할 경우 GDP 3.2조 엔(0.66%), 수출 2.6조 엔, 소비 3.0조 엔, 투자 0.5조 엔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농업부분은 생산 3조 엔 감소, 수입 2.9조 엔 증가 추정)

□ 일본의 TPP 참여는 사실상 미일 FTA 협상 개시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지며,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아태지역의 규범 제정자로서의 입지 강화

- 미국과 일본은 각각 경제규모 세계 1위와 3위, 교역규모 세계 2위와 3위로서 TPP 전체 GDP의 80%, TPP 전체 교역규모의 58% 차지

□ 일본의 TPP 참여는 미일 양국 간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태지역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는 기제로 작용

4. 일본의 TPP 참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영향

□ 일본의 TPP 참여로 일본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특혜이익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한국은 시장 선점 기회 상실

-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및 캐나다 등 4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현재 쟁점 사항의 미결로 협상이 교착 상태

○일멕시코 FTA는 2007년 4월부터 발효 중이므로, 일본의 TPP 참여에 따른 영향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발생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자원부국으로 일본은 TPP 참여를 통해 이들 국가와 자원개발 협력 등에 있어서 유리한 여건 확보

- 한국의 이들 3개국과의 교역액은 451억 달러로 한국의 총교역액 대비 4.2%이며, 멕시코를 포함한 4개국과 교역액은 567억 달러로 한국의 총교역액 대비 약 5.3%

□ 일본의 TPP 참여는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FTA 특혜이익 잠식 우려

- 한국은 2012년 3월 15일부터 미국과의 FTA를 발효 중인데, 일본이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도 미국 시장에서 특혜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므로 한국의 이익 감소

TPP,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 일본의 TPP 참여와 한국의 전략

- 미국의 상위 10대 대한 수입상품은 미국의 상위 10대 대일 수입상품과 겹치며, 이들 품목이 미국의 전체 대한 수입 및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8%, 85%로 높은 편

- 미국시장에서 한일 간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동차(93.6), 광물성연료(84.2), 고무제품(81.5), 광학 및 정밀기기(73.5) 및 플라스틱(65.0) 등에서 FTA 특혜 이익 감소 우려

[표 4] TPP 국가들과 한국의 FTA 추진 현황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일본의 FTA 추진 현황
한국과 FTA 발효 국가 (7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2006.3 발효) • 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ASEAN과 FTA, 2007.6 상품협정 발효, 2009.5 서비스협정 발효, 2009.9 투자협정 발효) • 미국(2012.3 발효) • 칠레(2004.4 발효) • 페루(2011.8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FTA 발효
한국과 FTA 미발효 국가 (4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2009.5 협상개시, 현재 협상 중) • 뉴질랜드(2009.6 협상개시, 현재 협상 중) • 멕시코(2007.12 협상개시) • 캐나다(2005.7 협상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와 FTA 발효 • 캐나다, 호주와 각각 FTA 협상 중 • 뉴질랜드와 FTA 검토 중

자료: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

[표 5] 한국의 TPP 국가들과의 교역규모

국가	관세율(MFN 실행관세율, 단순평균)			수출		수입		무역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금액(백만 달러)	비중(%)	금액(백만 달러)	비중(%)	금액(백만 달러)	비중(%)
대세계	-	-	-	547,869	100	519,584	100	1,067,454	100
미국	3.5	5	3.3	58,524	10.68	43,340	8.34	101,865	9.54
일본	5.3	23.3	2.6	38,796	7.08	64,363	12.4	103,159	9.66
싱가포르	0	0.2	0	22,887	4.18	9,676	1.86	32,564	3.05
베트남	9.8	17	8.7	15,945	2.91	5,719	1.10	21,665	2.03
호주	2.8	1.4	3.1	9,250	1.69	22,987	4.42	32,238	3.02
멕시코	8.3	21.4	6.3	9,042	1.65	2,591	0.50	11,633	1.09
말레이시아	6.5	10.8	5.8	7,723	1.41	9,796	1.89	17,519	1.64
캐나다	4.5	18	2.5	4,828	0.88	5,247	1.01	10,075	0.94
칠레	6	6	6	2,469	0.45	4,676	0.90	7,145	0.67
페루	3.7	4.1	3.6	1,472	0.27	1,639	0.32	3,112	0.29
뉴질랜드	2	1.4	2.1	1,465	0.27	1,339	0.26	2,804	0.26
브루나이	2.5	0.1	2.9	111	0.02	1,982	0.38	2,094	0.20
TPP 전체	-	-	-	172,512	31.49	173,355	33.38	345,873	32.39

주: 관세율은 2011년, 수출입, 무역액은 2012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OTIS), 관세율은 WTO 홈페이지

[표 6] 미국의 상위 10대 대한 및 대일 수입 상품

미국의 대한 수입					미국의 대일 수입		
순위	HS	품목명	2011	2012	순위	2011	2012
미국의 대한 수입액(전체)			56,661	58,880	미국의 대일 수입액(전체)	128,925	146,388
1위	87	일반차량	11,959	14,769	1위	41,023	51,381
2위	85	전기기기	16,080	12,771	3위	18,287	20,031
3위	84	기계류	10,336	11,173	2위	31,268	34,037
4위	27	광물성연료	2,661	3,107	10위	589	621
5위	73	철강제품	2,145	2,753	6위	2,269	2,884
6위	40	고무제품	1,990	2,156	7위	2,671	2,712
7위	72	철강	1,391	1,584	9위	1,491	1,684
8위	39	플라스틱	1,266	1,465	8위	2,109	2,319
9위	29	유기화학품	1,284	1,242	5위	3,004	3,250
10위	90	광학,정밀기기, 의료용기기	986	902	4위	6,900	6,856
상기 10개 품목 합계			50,098	51,922	상기 10개 품목 합계	109,611	125,775
미국의 대한 수입액 총액 대비 10개 품목 수입액 비중			88.4	88.2	미국의 대일 수입액 총액 대비 10개 품목 수입액 비중	85.0	85.9

자료: KOTIS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표 7] 미국시장에서 한일 간 수출경합도 지수¹⁾

순위	HS	품목명	2011	2012
1	87	일반차량	93.49	93.59
2	85	전기기기	41.28	46.74
3	84	기계류	52.91	50.05
4	27	광물성연료	78.44	84.23
5	73	철강제품	33.25	35.38
6	40	고무제품	84.53	81.48
7	72	철강	32.63	35.90
8	39	플라스틱	63.83	65.01
9	29	유기화학품	24.03	24.76
10	90	광학기기, 정밀기기	76.68	73.53

주: 미국의 상위 10대 대한 수입상품 기준(HS 2단위)

자료: KOTIS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

1) 경쟁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제3국 시장에서 특정 재화의 수출을 놓고 경합을 벌일 때, 그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수출경합도 지수(Export Similarity Index)를 사용함. a, b 양국이 c국 시장에서 k상품의 수출을 놓고 경쟁을 할 때, 수출경합도지수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됨. $ESI(ab, c) = \sum_{k=1}^n \text{Min} \left[\frac{X_{ac}^k}{X_{ac}}, \frac{X_{bc}^k}{X_{bc}} \right] \times 100$ 양국이 완전경합 관계에 있으면 ESI는 100의 값을 나타냄.

□ 일본 시장에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이 얻게 되는 특혜 이익을 한국은 누리지 못하는데서 오는 무역전환효과 우려

- 일본은 GDP 5.9조 달러(세계 총 GDP의 7.1%), 인구 1억 2,782만 명, 1인당 GDP 약 46,000달러, 전체 교역규모 약 1조 6,000억 달러(세계 총교역의 4.64%)로 대규모 시장 보유(2011년)

(2) 국제정치적 영향

□ TPP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FTA

- 오바마 2기 행정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FTA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TPP는 그의 핵심 전략 중 하나

- 동시에 미국은 TPP를 주도함으로써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부상을 견제하는 효과 모색

□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무역자유화 협상에 일본이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미일 동맹관계는 한층 강화되는 반면, 한국은 참여 배제에 따라 동맹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

- 미국의 우방국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TPP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데서 초래되는 국제정치적 소외(alienation) 우려

(3) 전략적 영향

□ 일본의 TPP 참여는 한중일 FTA 등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시아 FTA 추진 동력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 일본은 RCEP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국가이나, 일본이 TPP에 참여할 경우 RCEP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 존재

○ 일본은 그동안 농업 민감성으로 인해 TPP 참여 보다는 RCEP이나 한중일 FTA에 대한 참여에 무게중심을 두어 왔으나, 일본 통상정책의 초점이 TPP로 전환될 가능성 제고

- 미국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TPP 참여는 한중 FTA나 한중일 FTA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

- 일본의 TPP 참여가 동아시아 FTA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의 역할과 경제통합체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5.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과 고려요소

□ 현재까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TPP 참여에 대한 정식 제의를 받은 바 없으며, 미국은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시기에 맞춰 한국 정부에 TPP 참여를 강력히 제의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안을 해 왔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요청은 부재 (외교통상부 정레브리핑)

- 정부는 일본의 TPP 참여 선언 이전까지는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중점을 두면서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TPP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

- 일본이 TPP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의 TPP 참여 여부에 대한 논의 고조

□[경제적 실익 확보] 한국은 TPP 참여를 통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및 캐나다 등 교착상태에 있는 5개국과의 FTA 협상을 일괄 타결하여 추가적 시장 확대 필요²⁾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및 캐나다 등 5개국은 총 GDP 약 10조 3,000억 달러(전 세계 GDP 대비 12%), 한국과의 교역액은 약 1,600억 달러(한국 총교역 대비 약 15%) 규모

- 호주, 뉴질랜드 및 캐나다 등은 자원부국으로 한국은 TPP 참여로 일본의 자원시장 선점 방지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업 강국이 TPP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부문의 수입 증가에 대한 고려 필요

○한국과 일본은 모두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로 일본의 TPP 참여 시기에 맞춰 한국이 참여할 경우 일본과 공동 대응으로 협상력 제고 가능

○한미 FTA와 한EU FTA가 이미 발효되어 농업부문 수입에 대한 민감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

○TPP 참여국 가운데 일본, 미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한 완충 작용 가능

-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섬유 등 노동 집약 제조업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세(tariff peaks)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들 국가와 FTA 타결은 중소기업 수출 증가에도 긍정적

□[아태지역 규범제정 과정 참여 필요] TPP 규범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규범 제정과정 배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한국에 유리한 규범 도출

- TPP는 현재 전체적인 틀과 방향만 합의한 상태로 한국이 규범 제정 과정에 참여할 여지 다분

- 일본의 TPP 참여로 TPP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감소하여 한국의 규범 제정 참여 여지 증가

□[한미 동맹 공고화] TPP는 우방국인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FTA 협상으로 한국의 참여로 한미 동맹 관계 공고화 필요

- 중국이 TPP를 자국 견제 수단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TPP 참여는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 필요³⁾

2) 한국은 호주(2009.5 협상개시), 뉴질랜드(2009.6 협상개시), 멕시코(2007.12 협상개시) 및 캐나다(2005.7 협상개시)와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일부 쟁점 사항의 미해결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 한일 FTA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2월 까지 여섯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국간 민감산업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중단

3)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 단계상 높은 수준의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일찍부터 TPP 불참을 선언. 미국의 TPP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은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RCEP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표 8]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과 고려요소

필요성	근거	고려요소
1. 경제적 실익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등 5개국 시장 추가 확보 • 농업 등에서 한국과 입장이 유사한 일본과 공동 대응으로 협상력 제고 •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섬유 등 노동집약 제조업에 대해 고관세(tariff peaks) 부과 → 중소기업 수출에도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업 강국이 포함되어 있어 농업부문 피해 우려 → 한미 FTA, 한EU FTA 발효로 농업부문 수입에 대한 민감성 완화 → 일본, 미국 등 참여로 국내 수입급증 가능성 완충 효과
2. 아태 지역 규범 제정 과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 규범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에 유리한 규범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 제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참여 결정 필요
3. 한미 동맹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의 포괄적 동맹관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관계 악화 우려
4. 동아시아 FTA 모멘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동아시아 FTA 협상 가속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FTA나 RCEP의 추진 동력 약화 우려

□[동아시아 FTA 추진 모멘텀 강화] 한국의 TPP 참여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중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 가속화 필요4)

-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협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일본에 이어 한국마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핵심국가의 관심 이탈로 한중일 FTA나 RCEP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 상존

4)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를 토대로 ASEAN+3, 이후 ASEAN+6(RCEP)의 형태로 확장해 나가는 시나리오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 관점에서 한중일 FTA의 협상 모멘텀 강화는 한국에 매우 중요. 한국은 한중일 FTA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FTA가 형성될 경우, 중일 간 중재자 역할을 통해 경제적 실익 확보와 역내 정치적 위상 제고 가능

6. TPP 관련 한국의 전략

□[TPP 참여로 경제적·전략적 실익 확보] 일본의 참여 시기에 맞춰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추가적 시장 확보 및 동아시아 FTA 촉진 등 경제적·전략적 실익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농업 및 ISD 관련 협상력 제고

- 한국은 TPP 참여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등 5개국 시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아태지역의 통상 규범 제정 과정에 참여
- 농업부문의 수입 증가가 우려되나, 한국에 비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과 공동 대응할 경우 협상력 제고 가능
- ISD 조항 포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호주, 일본과 공동 대응할 경우 보다 엄격한 ISD 조항 마련으로 ISD 남용 방지 가능

- TPP와 RCEP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특정 통합체에서 배제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정치적 손실 방지

○ TPP 규모가 확대될수록 참여에 따른 이익과 배제에 따른 손실이 동시에 증가하므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Domino effect)

○ 경제회복과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데, RCEP은 추진 주도국이 분명치 않아 협상 장기화 가능

- TPP에서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문제를 제안함으로써 개성 혹은 북한 가공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확대와 대북 관계 진전 계기로 활용(정부의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와도 부합)

□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참여 결정]** 한국이 규범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참여 여부 결정

- 일본의 TPP 참여는 TPP 타결 시점을 지연시킬 것이며, 이는 한국의 시간적 여유 확보에 유리

-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TPP 전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

□ **[한중 FTA, 한중일 FTA로 대중 관계 강화]** 한국의 TPP 참여시 한중 관계의 악화가 우려되나, 한중 FTA 및 한중일 FTA의 적극 추진으로 해소

- 한중 FTA가 속도를 낼 경우 일본은 한중 FTA가 타결할 경우 중국시장에서 입게 되는 자국의 상대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 한중일 FTA 적극 추진 가능

- 중국 입장에서는 TPP의 세력이 커질수록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적극 추진 예상

- 한중 FTA 적극 추진은 일본의 FTA 추진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

○ 일본의 TPP 참여는 일EU FTA 등 일본의 FTA 추진에 촉매제로 작용하여 한국의 특혜 이익을 잠식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 확보 필요

- 동아시아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 및 경제통합체들의 역학관계를 잘 활용할 경우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달성 시기 조기화 가능

□ **[국내외 정지작업 필요]** 정부는 TPP 참여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국내외 정지작업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TPP 참여 희망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

- 참여 시기에 따라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경쟁국인 일본의 참여 시기에 맞춰 한국이 참여할 경우 일본의 시장 선점효과를 방지하는 한편,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협상력 제고 장점

- 내부적으로 참여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내적으로는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 제도 정비

- 동시에 대외적으로 TPP 주요 회원국들과 한국의 참여 여부 타진

- TPP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협상으로 많은 협상 인력과 자원이 소요될 것인 바, 협상 참여에 대비하여 협상 인력 및 자원 보강 필요